

시끌벅적 e-스타



명백이를 아십니까?

'마백이'가 패러디 인기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마백이'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등장, 각기 다른 자세로 이마와 허벅지를 칠 새없이 반복해 때리는 내용의 코너로, '마백이'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 특히 인터넷에서는 '마백이'를 패러디한 동영상도 화제다. 최근 가장 뜨는 동영상 UCC(사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는 '명백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장면이 손으로 이마를 치는 '마백이'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 텐트 안에서 로션을

물린 양 손바닥을 뺨에 가져다다가 이마, 목으로 옮기는 모습을 여러 장면으로 보여준다. 마백이 노래를 배경 음악으로 깔았다. UCC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면서 48초짜리 동영상이지만 동영상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이외 KBS 2TV '상상플러스'의 MC 탁재훈이 지난 23일 방송에 '마백이'로 분장한 '탁백이'로 변신한 뒤 '마백이' 동작을 흉내낸 동영상도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③ 먼저 시도하는 것이 성공을 부른다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이 이제는 어느 정도 허물어졌어도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은 여전히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노총각, 노처녀는 처음부터 노총각 노처녀는 아니다. 대부분이 너무 좋은 상대, 너무 좋은 조건 등 너무 잘 하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사회 수준의 상승도에 따라 노처녀 노총각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노처녀들에게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상대에 대해 '다다익선' : 즉 가진 것이 많을 수

로 일에 중독돼 여자에게 아예 관심이없거나 여자를 사귀 시간 없는 경우, 카사노바적인 성향으로 한 여자만을 만나는 남자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 등이다. 노총각노처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기회와 닿을 때는 언제나 연애나 사랑을 먼저 시도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적절한 상황에서의 적당한 용기가 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늘 더 좋은 것, 더 멋진 사람을 쫓고 생각하기 보다는 맨 처음 혹은 지금의 사람이 낫다는 생각을 가져라. 상대의 마음 속에 그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사람, 또는 맨 처음 데이트를 신청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라.

기회가 닿을 때 먼저 시도하려는 마음 가져라

꼭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학벌, 재산, 권력, 게다가 외모까지 갖춘 남자라야 한다는 것, 매너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하는 것, 함께 수다 떨 친구가 많다는 것이다. 모든 스트레스는 친구들과의 수다로 풀며 입으로 연애, 결혼, 이혼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남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 또 지독한 결벽증으로 인해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야 자신감이 서서 자신처럼 완벽한 남자를 찾는다는 것, '나는야 만인의 연인'이라는 생각이 있어 한 남자에게 얽매 수 없다는 것, 한 남자에게 매이자나 이 남자가 아깝고 다른 남자를 보자나 이 사람이 아깝고 그래서 절대로 진정한 사랑에 빠지기 어렵다. 노총각의 특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소(小小)익선' 즉,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는 생각, 자신의 외모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 술친구나 취미를 같이 할 친구가 많아 연애할 틈이 없다는 것, 지독한 위커홀릭 성향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먼저 상대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고 적극성을 보이려는 것.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고 그것은 다시 나에 대한 호의와 느낌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자. 작은 용기면 가능하다. 먼저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늘 지금 시도하려는 마음이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자존심 상해 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며 훌훌 털어버리고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당당한 솔로들의 진정한 처세술일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 (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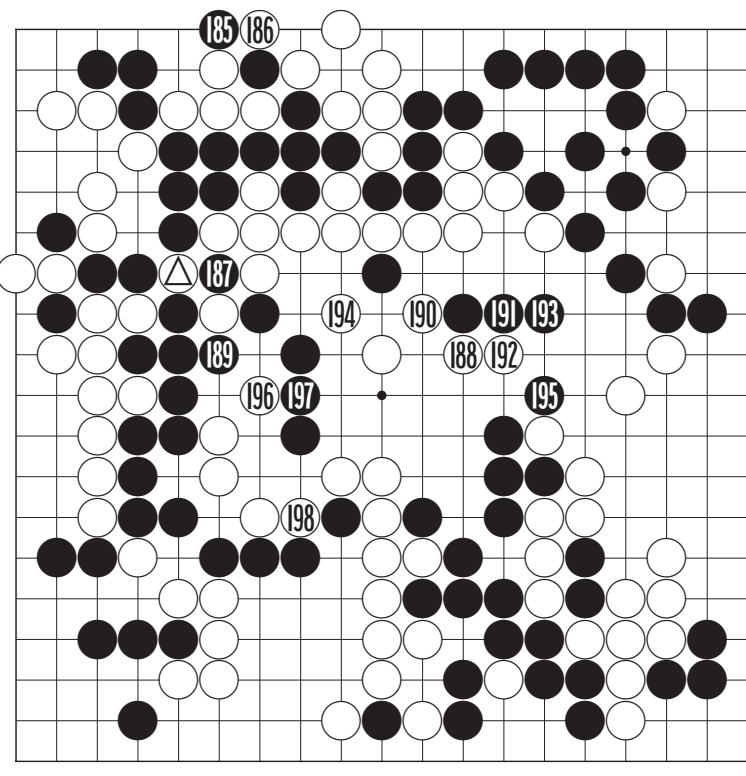
뉴스퀴즈

48.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연도(2005.11~2006.10)의 기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경우 2001년 88.9kg에서 2003년 83.2kg, 2005년 80.7kg 으로 감소 추세속에 서도 80kg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80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요. ① 78.8kg ② 80.7kg ③ 90kg ④ 100kg

참어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5일(음 12월 7일 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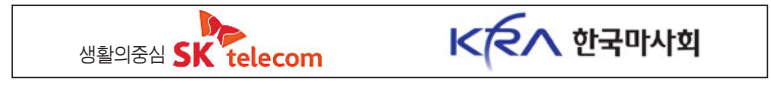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제외회 전남남도지사에게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 백 홍석의 6단 <목포시> 흑 김종민 6단 <해남군> 백은 0로 따내 그야말로 '꽃놀이 패'의 형국이다. 흑은 패에 지면 다 잡혀서 끝장이지만 백은 저도 그만이다. 김종민 6단은 여기에서는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다. 일단 185에 패를 쓰고 버티어 보지만 이 패는 겨우 사는데 급급한 패다. 반면 홍석의 6단은 여유가 만만하다. 이 패를 이기기 위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하다. 확실하게 이기는 수단 두면 되는 것이다. 팻감잡지도 않은 188이 지리했던 드라마를 끝내는 결정타가 되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온소진, 전자랜드배 4강 진출 온소진 3단이 지난 23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청룡부 8강전에서 김형우 초단에게 20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온 3단은 이날 우승기를 내주기도 효과적으로 흑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노력함으로 승기를 잡았다. 덤을 내기 힘들어진 김 초단은 결국 돌을 거두었다. 온 3단은 이미 4강에 합류한 백홍석 5단과 결승 진출을 다했다. 나머지 조에서는 이세돌 9단과 김지석 3단이 결승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상처를 딱지없이 깨끗하게!!'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A table with 4 columns and 2 rows. Each cell contains a language learning exercise with a title, a Korean sentence, and its English translation. The columns are: 1. English (I'll have to ~), 2. Japanese (久(ひさ)しぶりにジョギングをしたんだ), 3. Chinese (这个小区真漂亮), 4. Korean (鐵面皮(철면피)).